

2007 임원연수회 성황리 개최



협회는 3월 21일, 22일 양일간 대전유성 레전드호텔에서 낙농인 지도자대회를 겸한 임원연수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먼저 협회 이승호 회장은 산적해 있는 낙농육우 산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의 낙농육우 농가를 하나로

아우르고 진정 낙농육우농기를 위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는 당부의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첫 행사는 'FTA 시대를 맞은 낙농산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의 낙농특강 시간을 가졌다. 박종수 교수는 우리 낙농산업의 정책과제



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단일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가격관리 측면에서 최근 소비자의 웰빙지향적 식품 소비성향에 따라 원유가격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농가들이 사양 관리 등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예고하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우유표시기준 개정,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소비측면에서는 학교급식 및 군급식 필수 메뉴화,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공동소비촉진 프로그램 도입, 통일대비 북한내 점진적인 원유의 생산 및 우유·유제품 소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낙농협동조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낙농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낙농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의 발표로 '낙농유제품의 관세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에서는 유제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혼합분유 수입이 분유시장을 점령하는 등 유제품 수입의 파행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 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의 초청강연 시간을 가졌는데, 황민영 위원장은 현재 한·미 FTA 등 세계화 속에서의 우리 농축산업의 현실과 이러한 여건속에서의 협동조합과 협회의 역할, 낙농육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 스스로의 단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후, 13대 새로운 집행부 구성 이후 첫 이사회를 갖고, 낙농육우 현안에 대한 협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낙농육우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건에 대해서는 낙발대책 대응활동 전개, 무허가 축사 대책마련, 육

우 조직 활성화 및 현안 대응활동 전개 등 원안대로의 결하였으며, 낙농진흥회 이·감사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에는 최재민(충남 홍성) 이사, 감사에는 선종승(전남 함평) 이사를 추천키로 하였다. 아울러, 낙발대책 활동방안을 비롯하여, 농지법 후속대책 마련, 면세유 축산기계 공급기종 확대, 브루셀라 대책 방안 마련, 친환경축산작물제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금번 임원연수회에서는 전직 임원, 도지회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 1 _ 협회 이승호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2 _ 낙농특강시간에는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가 낙농산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 3 _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의 발표로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 4 _ 초청강연에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이 열강하였다
- 5 _ 전직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 6 _ 전직 도지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 7 _ 공로패 수여자들의 기념촬영
- 8,9,10 _ 제2회 이사회 전경 외
- 11 _ 지도자 간담회를 마치고 전체행사 기념촬영

